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정치엘리트 구술연구를 중심으로*

조영재**

1. 문제제기
2.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구조와 특성
3. 유형1 : 기억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 1) 선별인식과 선별기억
 - 2) 개별적 경험
4. 유형2 : 기억의 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 1) 망각
 - 2) 기억의 변형
5. 유형3 :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 1) 의도적 허위진술
 - 2) 반복되는 허위진술
6. 결론 : 간극 좁히기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AKS-2009-AKA-1101). 이 논문은 2013년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워크숍(구술과 사실의 간극: 심층구술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 발표되었던 메모를 발전시킨 것이다. 덧붙여 이 논문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비평을 해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저, 「한국복지정책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008, 『민주주의대민주주의』, 2008.(공저)

▪투고일 : 2014년 12월 15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월 17일

[국문초록]

최근 정치엘리트에 관한 구술연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엘리트 구술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거리(간극)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엘리트 구술자료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간극은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별인식, 선별기억, 개별적 경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오류와 구별된다. 이 유형의 간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며,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제2유형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이다. 망각이나 기억변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구술자에게서 이러한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해석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제3유형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간극이다.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피하거나 제거해야할 간극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구술사, 구술자료, 정치엘리트, 기억의 변형, 인지불일치, 집단사고, 일관성편향, 허위진술

1. 문제제기

현대적 의미에서 구술사가 학계에 등장한 역사는 매우 짧다.¹⁾ 그 중에서도 정치엘리트의 구술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한 것은 더욱 최근의 일이다.²⁾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 구

-
- 1)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가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구술에 의존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술사적 전통은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역사적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정착된 것은 1948년 출발한 컬럼비아 대학의 “구술사 프로젝트”에서였다.(Sharpless, Rebecca, “History of Oral History” Charlton, L. E, L. E. Myers eds. *Handbook of Oral History*, Oxford: Altamira Press, 2006, pp.19~22)
 - 2)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엘리트’의 개념, 구성,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엘리트’는, 명시적인 개념정의 없이, 특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사정은 구술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구술사 연구에서 ‘엘리트’는 단순히 정치인, 관료, 국회의원, 국가지도자, 기업인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엘리트’는 자신들이 지닌 통제력을 정당화시키는 존재로서 묘사되며, 그렇지 못한 일반사람들(ordinary people), 패배자들(the vanquished), 버림받은 자들(the earth’s forshaken one)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은유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다수 엘리트 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사회조직 또는 국가에서 정책결정권을 가진 소수 집단’이라는 서술적 정의에 따른다.

술의 성과는 적지 않다. 1961년부터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NARA)이 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libraries)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술사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³⁾ 1920년에서 1980년까지 활동했던 영국 핵심 정치엘리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영국 런던정경대학도서관의 ‘영국정치행정구술사아카이브’(British Oral Archiv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History: BOAPAH) 프로그램이나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집되어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 구축되어 있는 정부 및 정당관련 구술사컬렉션은 또 다른 사례이다.⁴⁾

한국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압축적으로 반복된다. 지난 30여 년간 구술사 연구의 영역, 대상,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특히 2000년 후반부터는 엘리트 구술자료의 수집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 분야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기록될 만 했다. 정치엘리트에 대한 구술자료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현대한국구술사 연구’의 일환으로 해방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활동했던 정당정치엘리트에 대한 구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역대 대통령 관련인사 구술채록 사업’을,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2012년부터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채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⁵⁾

3) 이 프로젝트는 NARA의 주관하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진행하는 일련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다. 트루먼대통령기록관의 구술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역대 대통령에 관한 구술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케네디기록관은 1,300여 개, 존슨기록관은 1,500여 개의 인터뷰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 종료된 클린턴기록관은 130여 개의 인터뷰자료를 소장하고 있다.(Greenwell, R., “The Oral History Collections of the Presidential Librarie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84, No. 2. 1997. pp.597-599. Riley, R. L., “Presidential Oral History: The Clinton Presidential History Project”, *The Oral History Review*, Vol.34, Issue 2. 2007. pp.93.

4) BOAPAH에 대해서는 <http://archives.lse.ac.uk/Record.aspx?src=CalmView.Catalog&id=BOAPAH> 참조. 영국국립도서관 컬렉션에 대해서는 <http://www.bl.uk/reshelp/findhelprestype/sound/ohist/ohcoll/ohpol/politics.html> 참조 [2014. 11. 5 검색].

5) 김태우, 「엘리트 구술자료의 성격과 수집방안」, 『구술사연구』 제5권 1호, 43-44쪽 참고

이러한 정치엘리트구술자료 수집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권력자의 집무실에서,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정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⁶⁾ 물론 정치권력이나 제도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술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1차적으로 기존의 문서기록, 시청각기록들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기록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은 주로 문어(written words)보다 구어(spoken words)를 통해 작동되고, 공개된 영역(front doors)보다 비공개 영역(closed doors)에서 행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권력의 작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을 때조차,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흘러진 것(purposive leaks)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30,000여 개의 문서보존함(archival boxes)에 보존된 문서들, 백악관의 모든 이메일과 전자문서들, 사진과 영상필름들, 1,000쪽에 가까운 회고록(My life), 그리고 이러한 공식 기록에 버금가는 양으로 추정되는 언론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⁷⁾

-
- 6) 엘리트 구술자료의 쓰임새는 단순히 사실 확인의 영역을 넘어서 훨씬 다양하다. 다른 구술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구술자료 역시 구술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정치적·심리적·언어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인력과 높은 비용을 투입하여 엘리트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사정은 엘리트구술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정부기관 또는 재단)의 관심사에 기인한 바 크다.
- 7)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록들이 추가된다. 7년 동안 4,000만 달러이상의 비용을 들여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조사했던 특별검사 스타(Starr)의 조사기록들, 각종 독립위원회와 의회 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기록들. 이러한 기록들의 목록과 함께, 이들 기록들을 통한 사실접근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Riley, "Presidential Oral History", pp.84-87. 참고.

문제는 여기에서 수집된 엘리트 구술자료가 그 가치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⁸⁾ 여기에는 두 가지 통념이 이유로 작용한다. 첫째, 정치엘리트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이며, 주관적일 뿐 아니라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는 통념 때문이다. 이는 정치엘리트 구술자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술자료에 적용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의 재구성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치엘리트 구술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⁹⁾ 둘째, 정치엘리트의 특성 상 자기 합리화와 거짓 진술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통념 때문이다. 이 또한 정치엘리트 구술자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비엘리트(non-elite)보다 엘리트가 더 많은 자기 정당화의 동기와 능력을

8) 엘리트 구술자료의 가치에 대한 의심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는 실증주의적 시각으로부터의 의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심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다. 또 다른 의심은 '아래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 시각으로부터 나온다. 이들에 따르면, 엘리트 구술자료는 연구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이미 엘리트들은 공공기록을 통해 압도적으로 과잉 대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기, 메모의 형태로 자신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구술자료가 연구자원의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을 넘어선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엘리트 구술연구에 의해서도 엘리트들이 공적문서 속에서 얼마나 과잉대표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서기록이 지니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과도하게 기울어진) 체계적인 비대칭성(systematic lopsideness)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생산·재생산하는 지를 분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엘리트구술사연구 또한 다른 전통적 구술사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한다'는 구술사의 '특화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Waldemarson, Y. "Openness and Elite Oral History: The Case of Sweden", *The Paradox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Nordic Cultures of Consensus*, Brill Academic Publishers, 2014, P.177. 참고.

9) 엘리트 구술연구자 모두가 이런 목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또는 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국내외의 대규모 정치엘리트 구술연구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재구성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엘리트구술을 활용하여 정치현상의 인과분석을 하고자 하는 많은 학문적 연구들의 목적도 이와 유사하다.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엘리트들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시도를 정당화하는 이야기(a lore)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맥마한(McMahan)의 지적은 이러한 속성을 잘 드러내 준다.¹⁰⁾ 게다가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엘리트의 구술이 지닌 영향력은 비엘리트(non-elite)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짓 진술의 과급효과는 심대하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위와 같은 두 가지 통념에서 출발한다. 이 통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치엘리트 구술자료는 다른 구술자료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지도 신뢰할만하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정치엘리트의 자기정당화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간극(괴리)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즉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간극을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와 양상은 어떠한가, 그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2.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구조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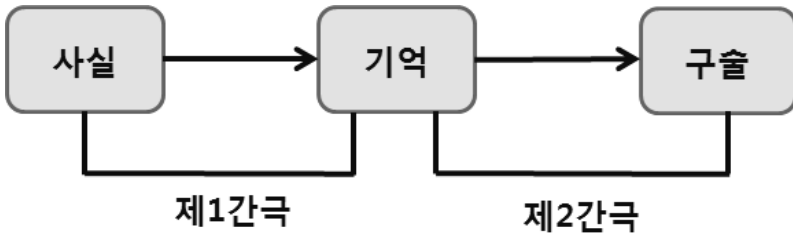
정치엘리트 구술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이 질문은 정치엘리트 구술자료가 지닌 역사적 증거능력의 가능성과

10) 엘리트를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이념적 자원의 소유관계 속에서 정의하는 정치학 또는 사회학적 정의와 별도로, 맥마한은 엘리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닌 통제력을 정당화하는 구술주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비엘리트(non-elite)는 “자신들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McMahan, E. M. *Elite Oral History Discourse: A Study of Cooperation and Coherence*,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9. pp.33~34.

한계는 묻는 것이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구술자료가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실과 구술자료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간극’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사실 구술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구술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 즉 ‘사실(fact)’, ‘기억(memory)’, ‘구술(oral narrative)’이라는 요소를 거쳐서 생산된다. 구술자료와 사실 사이의 간극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거치면서, 때로는 구술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적·우연적·필연적으로 형성(rising)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술자의 의식적·무의식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선택적으로 구성(making)되기도 한다. 세 가지 요소와 간극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구술과정과 간극



최초의 간극(제1간극)은 외부의 ‘사실’과 구술자의 ‘기억’ 사이에서 발생한다. 실제 구술의 토대가 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인데, 이는 단순히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모사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니다.¹¹⁾ 심리학적

11) 구술사 연구자들은 ‘기억’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폴 톰슨(Paul Thompson)처럼 심리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기억이 지닌 생물학적·생리학적 특성에 주목하기도 하고, 나탄 바슈텔(Nathan Wachtel)처럼 사회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기억이 지닌 사회적·집합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한다.(Wachtel, N. Between Memory and Histor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윤택림 편역, 『구술

발견에 따르면, 완전 기억(total recall)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화이며, 기억이란 일련의 선택과정을 거치는 재구성 행위(reconstructive behavior)라는 점이다.¹²⁾

사실과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제1간극)이 구술연구에 미친 영향은 이중적이다. 이러한 불일치와 간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실증주의 역사학은 구술연구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일부 역사가나 구술연구자들은 새로운 역사인식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사학자 카아(Carr)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의 사실)’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고, 역사적 사실이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가가 능동적으로 해석했던 결과로 보았다.¹³⁾ 구술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도 독특한 특성에 주목했던 포르텔리(Portelli)는 기억이 주관적인 것이란 점을 수동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역사의 일부로 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적 경험이나 기억의] 주관성은 더 가시적인 ‘사실들’ 만큼

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참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억’이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억’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견해들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억이 지닌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심리적·생리적 메커니즘(개인적/심리학적차원)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회집단 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사회적 틀(집합적/사회학적차원)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간극’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심리학적 접근에 기반 한다. 반면 후자에 기반 한 연구로는 허영란(「대항기억의 정치학과 기억공동체: 울산 장생포 포경사 구술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의 문화적 재구성과 실천적 담론 학술회의 자료집』, 2012.) 참고.

12) Parkin, A. *Memory: A Guide for Professionals*, Wiley, 2000. 이영애·박희경 역, 『기억연구의 실제와 응용』, 시그마프레스, 2001. 20-26쪽.

13) 이재성, 「한국정치사와 구술사: 정치학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사회과학』 통권 제29권. 186쪽.

이나 역사의 영역 안에 있다. 제보자들[구술자들]이 믿는 것은 정말 일어난 것만큼이나 진정한 역사적 사실, 즉 그들이 믿는다는 사실이다.¹⁴⁾

포르텔리는 주관적 기억을 역사적 사실로 취급함으로써 구술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즉 구술자료는 실제의 가시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다는 그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실제 사건들에 대해 '틀린' 진술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계속 '진실'이고, 이러한 '진실'은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설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포르텔리에게 있어서 사실과 기억의 간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틀린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일부로서 신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주관적 기억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일부라는 포르텔리의 주장은 제1간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간극이 부정적이거나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간극의 구조와 의미는 포르텔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좀 더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기억 간에는 다양한 동학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실과 기억 사이에 인지(cognition)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1 간극은 외부의 사실(fact) → 인지(cognition) → 기억(memory)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제1간극이 발

14) Portelli, A,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84쪽

15) Portelli, Ibid, 83-85쪽 참고.

16) 넓은 의미에서 인지(cognition)는 지식의 습득, 저장(기억), 변형, 사용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억 역시 넓은 의미의 인지에 포함된다.(Matlin, M. W. *Cognition*, 6th ed. Wiley, 2004. 민윤기 역, 『인지심리학』, 박학사) 여기서는 분석적 편의를

생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과정’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과정, 즉 ‘사실을 인지하는 과정’, ‘인지한 사실을 기억’하는 과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표 1〉 제1간극(제1유형간극과 제2유형간극)의 발생요인과 형태

제1간극 발생과정	사실 → 기억	
제1간극 유형	사실과 인식의 간극 (제1유형)	인식과 (장기)기억의 간극 (제2유형)
간극 발생요인	인식주체의 능력, 상태, 상황 등	장기기억의 종류, 시간, 학습, 인지부조화
간극 형태	생략, 선별, 착오	망각, 기억변형

제1간극의 첫 번째 과정, 즉 먼저 외부의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식론의 오래된 주제이자 논쟁의 대상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식주체의 상태, 능력, 상황에 따라서 인지 내용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종종 생략과 선별, 착오나 오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⁷⁾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을, 이 논문에서는 ‘제1유형의 간극’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제1간극의 두 번째 과정은 인식한 내용을 어떻게 유지(기억)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형태, 즉 단기기억과정과 장기기억과정으로 구분된다.¹⁸⁾ 구술과 관

위해 좁은 의미로 쓰이며, 지식의 습득(외부 사실에 대한 인식)에 국한한다.
 17) 이 과정은 복잡한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외부의 사상(event)을 등록하는 감각(sensation), 등록된 감각을 해석하는 지각(perception), 직접 지각되지 않는 것을 심적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심상(imagery)이 개입한다. Hermann, D. J., C. Y. Yode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6. 이재석 역, 『응용인지심리학』, 2009. 97~100쪽. 참조.
 18) 새로운 기억은 단기기억에 저장되며, 필요하면 장기기억으로 옮겨 저장된다. 옮겨지는 과정은 기억흔적의 ‘응고화’(consolidation)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가지 기억의 차이와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Parkin, *Memory: A Guide for Professionals*, 3~13쪽 참조.

련하여서는 장기기억과정이 중요하다. 구술은 장기기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지속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구술과정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망각’이나 ‘기억변형’에 의한 간극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간극을 ‘제2유형의 간극’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또 다른 간극, 제2간극은 기억과 구술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간단하다. 의도적인 허위진술, 즉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2간극은 제1간극에 비해 간명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자신을 과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진술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자나 경쟁자의 위신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한다. 이러한 간극은 앞의 유형들과 달리 ‘제3유형의 간극’으로 이른다.

제3유형의 간극과 그 결과가 구술자료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많은 심리학 연구가 ‘인간의 삶에서 거짓말은 일상적이며 바람직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술에 관한 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¹⁹⁾ 일부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은 나머지 다른 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술자료가 구술자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한다.

〈표 2〉 제2간극(제3유형 간극)의 발생요인과 형태

제2간극 발생과정	기억 → 구술
제2간극 유형	기억과 구술의 간극 (제3유형)
간극 발생요인	수많은 개인적 동기
간극 형태	허위진술(거짓말), 반복적인 허위진술

19) 사회심리학자 드파울로(DePaulo)는 일련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 거짓말은 비정상적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진실(whole truth)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설령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DePaulo, B. M. “The Many Faces of Lies”, in A. G. Miller, ed.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Evil*, Guilford Press, 2004).

앞서 보았듯이 객관적인 사실과 구술자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그 형태마다 훨씬 많은 발생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을 모두 다루는 것은 광범위한 심리학적·사회학적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다양한 간극 형태 중에서 구술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형태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제1유형 : 기억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앞서 지적했듯이, 모든 간극은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객관적 사실을 온전히 총체로서 인식하거나 재현할 수 없으며, 개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의 인식과 기억의 토대가 되는 경험은 객관적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는 ‘기억의 주관성’으로, 후자는 ‘기억의 개별성’으로 표현된다. 아래 두가지 형태는 이를 대표한다.

1) 선별인식과 선별기억

구술자들이 사물을 개별적·선별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나가 개별적·선별적으로 ‘기억’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간극이다. 이는 동일한 시간대에서 동일한 경험을 함께 했던 구술자들 사이에서조차 서로 다른 구술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선별인식은 사람들이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정보 등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각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시공간,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구술묘사에서 종종 등장한다.

예컨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한 야당지도자가 당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던 야당의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언급했던 사례를 살펴보자. 당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두 명의 구술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식했다. 즉 그 야당지도자의 언급에 대해, 한 구술자는 ‘여당에 대한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였다고 인식했던 반면, 다른 구술자는 ‘당지도부의 결정에 따르라는 협박’이었다고 느꼈다.²⁰⁾

선별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기억하는데 따라 나타나는 간극형태이다. 구술연구자 반시나(Vansina)의 ‘기억’ 개념은 이러한 간극에 기초하고 있다.

기억은 내면화된 행위, 즉 ‘회상이미지’(remembrance-image)로 사건이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다. (...)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것을 서술하는 두 가지 과정에서 감각적인 자료는 선택되거나 버려지고 재구성되어서, 그 가운데 생기는 ‘공백’(gaps)은 ‘그랬음이 틀림없어’(it must have been)라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채워진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회상하는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은 명백하게 나타난다. 증언은 반복되면 될수록 거듭 재구성되고, 어떤 정보는 생략되고 관찰되지 않는 것들이 첨가된다.²¹⁾

이처럼 구술자들은 인식과 기억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선별되고 재구성되어 인식하고 기억함으로써 간극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의 존재는 구술자료(정치엘리트 구술자료를 포함하여)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구성된 모든 산물의 운명이다.

20) 이 글에서 인용되는 구술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일부 비공개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사례 인용에 굳이 구술자의 인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21) Vansina, Jan, “Memory and Oral Tradition”, in J. C. Miller, ed. *The African Past Speaks: Essays on Oral Tradition and History*, Archon, 1980. 윤택림,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56쪽.

문제는 접근방법이다. 반시나는 서로 독립적인 구술 속에서 일치점을 찾음으로써 왜곡을 찾아내고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²⁾ 또 다른 구술사가 포르텔리는 왜곡이나 왜곡을 만들어내는 주관성 자체가 또 다른 창조물이므로, 주관성이 만들낸 산물들을 역사적 사실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²³⁾ 일견 서로 다른 해석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입장은 사실 대립적이지 않다. 엘리트 구술자료에도 사실과 다른 무수한 착오나 왜곡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류는 반복된 구술이나 독립적 구술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자료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왜곡된 인식과 기억은 그 자체로, '사건이 발생했던 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구술을 하고 있는 현재'나 '구술이후의 미래'에 있어서 의미있는 '또 다른 사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과 기억이 선별적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데올로기적 폐쇄회로 속의 사고'나 '집단사고'(groupthink)의 경우이다.²⁴⁾ 역사학자 소퍼(Soffer)는 '이란-미국 외교관계 프로젝트'(Iran-American Relations Project)의 구술자료를 분석하면서, 잘못된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²⁵⁾ 1970년대 초 이란군사지원임무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국방성 소속의 한 장성(Gen. Ellis Williamson)은 그의 구술을 통해, 자신이 이란왕정(shah's regime)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구술에서, 이란왕정의 재배충인 상층 5~6%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교양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22) Vansina, 위의 글, 73-74쪽.

23) Portelli, 위의 글, 85쪽.

24) 이 개념(groupthink)은 제니스(Janis)가 쿠바미사일 위기 당시 피그만 습격 사건 등과 같은 미국의 정책결정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응집력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집단 내의 규범에 동조현상을 일으키므로, 합리적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25) Soffer, J, "Oral History and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82, No.2, pp.610-612.

반면, 나머지 대다수 대중은 신데렐라 정서를 지니고 있었으며 자극을 갈망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1979년 이란혁명을 통해) 자극을 받았으며, 극단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소퍼는 윌리엄슨의 구술자료를 통해 세 가지 해석을 도출해낸다. 첫째, 윌리엄슨의 구술자료는 그 자체로, 윌리엄슨 개인이 대다수 이란인에 대해 서구적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무능한 제국주의자임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슨의 구술자료는 그가 말하지 않은 것도 드러낸다. 소퍼는 윌리엄슨을 다른 구술자들과 비교함으로써, (윌리엄슨이 속해 있는) ‘군사관료’와 ‘외교관료’ 간에 이데올로기적 균열(ideological cleavage)이 존재했다고 분석한다. 당시 이란에 파견된 미국 관료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집단사고(ideological groupthink)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퍼는 윌리엄슨과 같은 군부관료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르는 ‘대다수 미국인들’과 매우 비민주적인 이란왕정을 지지하는 ‘미국정부’ 사이에 놓여진 겹을 매우기 위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은 인식조차 역사적 현실을 구성하는 자료로서 해석이 가능하다.²⁶⁾

2) 개별적 경험

개별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은 간극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이 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된 큰 사건의 일부일 경우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회적·정치적 사건들이 무수한 행위자들에 의

26) 소퍼는 이러한 자료해석 방법을 ‘징후발견적 독해’(symptomatic reading)이라 불렀다. Soffer, *Ibid.*, p.610.

해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간극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1987년 '6·29선언'에 관한 구술자료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던 '6·29선언'의 실제 진원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한국 민주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 측의 기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태우 후보의 결단에 의한 것인지가 중심적인 관심사이다. 구술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언 당사자인 '노태우 후보' 주변인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노태우 후보가 '6·29선언'의 핵심 내용인 대통령직선제를 정말 고려하고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것이다. 구술자료에 의하면, 당시 외교안보 전문가였던 K교수, 측근 정치인 L씨, P씨 등 여러 인사들이 그들 스스로가 당시 야당과 재야가 주장하고 있던 대통령 중심제를 수용하여 정국을 돌파하도록 노태우 후보에게 조언했던 '진원지'를 자처하였다.²⁷⁾

그러나 여러 명이 진원지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들 중 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짓진술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 모두가 거짓진술을 한 것인가? 다른 여러 구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들 모두가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독자적으로 권고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노태우 대표가 이들의 권고를 실제로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다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헌조치'로 대통령 직선제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대치정국을 이어갈 때, 여권 내부에서 조차 직선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27) 노태우 전대통령 자신은 언론인 조갑제와의 인터뷰에서 K교수가 진원지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측근 S씨의 관리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신뢰성에는 의문에 여지가 있다. 조갑제, 『노태우 육성회고록』, 조갑제닷컴, 2007, 164쪽.

이처럼 역사적 사건에는 여러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그 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당사자(stakeholders) 간의 갈등이 심할 경우에, 소수 엘리트의 구술만으로는 전체적인 객관적 사실을 구성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따른다.²⁸⁾ 달리 말하면, 개별적 경험에 기초한 구술자료 일 경우에, 사실과의 간극은 더 많은 개별적 경험자들의 구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종합함으로써 좁혀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제2유형 : 기억의 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주관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형성된 기억조차, '원형'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억은 시간의 풍화과정을 거치면서 소실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기억의 상실'과 '기억의 변형'에 따른 간극 유형을 다룬다.

1) 망각

인간의 기억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짧은 시간의 즉각적 기억이며, 후자는 일생동안 누적되어 있는 경험과 정보에 대한 기억이다.²⁹⁾ 망각(forgetting)은

2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 결정과정은 이러한 복잡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정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보통합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와대, 경제관료, 복지관료, 국회, 사회단체 등의 복합적 구술이 필요하다. 조영재, 「한국 복지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008. 참고.

29) Matlin, *Cognition*, 118쪽.

이러한 장기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망각은 처음에 급속히 진행되다가 거의 기억이 남아 있지 않는 순간부터는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³⁰⁾

구술연구에서 이러한 망각이 만들어낸 간극은 일종의 재앙이다. 다른 간극유형들은 분류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변형을 재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망각은 수정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재도 남겨 놓지 않는다. 하지만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아무런 분석대상 조차 남아 있는 않는 ‘망각’상태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먼저 ‘섬광기억’(flashbulb memory)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섬광기억은 정서적 각성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사건이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³¹⁾ 이 종류의 기억은 오랫동안 망각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 예를 들어 기자출신의 정치인 S씨는 처음 특종 정보를 획득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치 현재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날짜, 시간, 날씨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주변 장소의 사물배치, 상대방의 옷차림과 표정, 대화내용까지 스냅사진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연구에서 이러한 섬광기억이 시사하는 바는 명료하다. 망각을 견뎌내지 못하는 기억들은 구술자에게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지 않는 평이한 사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문성’도 망각에 저항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그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한다는 것이다.³²⁾ 노태우 정부시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K씨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해 상세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

30) 멱함수(power function) 형태로 나타나는 망각곡선(forgetting curve)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1) Ibid, 181쪽.

32) Ibid, 175쪽.

었다. 토지공개념정책의 배경이 되었던 재벌들의 토지투기현황과 그에 관련된 수치들, 정책 찬성자 및 반대자의 목록과 그 행위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화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전문성이 구술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이 경험했던 사안들에 대해 기억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무수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간사로서, 위원장으로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던 중요한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 상세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지어는 자신이 발의하여 사회적·정치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안에 대해서조차 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이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위정보나 외유정보, 정치적인 친소관계 등과 같은 정치정보에 대해 높은 기억력을 보였다. 이런 부류의 국회의원은 정책전문가라기보다 정치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던 경험’이나 ‘기분일치’(mood congruence)³³⁾도 망각에 버티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쓰여진 문서기록에서 누락된 정보는 더 이상 다루기 어렵지만, 이처럼 구술연구에서 망각된 기억은 구술자의 경험적 특성을 추론하는데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기억의 변형

한번 ‘형성된 기억’일지라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변형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멀어져간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학습’(learning)이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엘리트들은

33) 기분이 유쾌한 상태에서 유쾌한 기억이나 기분이 불쾌한 상태에 불쾌한 기억은 더디게 망각된다. Ibid. 167쪽.

비엘리트를 보다 학습의 기회나 동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엘리트들 경우, 과거 자신이 관련되어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한다. 그 결과, 때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경험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습득된 정보에 기초해 자신의 기억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다.

‘일관성 편향’(consistency bias)도 기억의 변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꼽힌다.³⁴⁾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감정(및 신념) 사이에 일관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인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멕시코계 여성과업 노동자들을 면담했던 역사학자 호닉(Honig)은, 이들에게서 일관성 편향을 발견하였다. 처음 과업에 참가했을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과업을 통해 자신들이 소심한 공장노동자에서 자기 확신에 찬 투사로 변모하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몇 년 뒤 다시 면담했을 때에 ‘그들 자신들은 항상 자기주장에 강하였으며, 북중적이지 않았었다’고 회상했다는 것이다.³⁵⁾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는 기억변형을 가져오는 매우 빈번하고도 은밀한 형태의 간극이다. 인지부조화는 ‘흡연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생각과 ‘나는 하루 두 갑의 담배를 피운다’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인지요소(사상, 신념, 태도,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불유쾌한 감정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은 긴장이완이나 비만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라는 구실을 만든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을 통해 부조화에 따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다.³⁶⁾ 비엘리트들도 일

34) Matlin, *Cognition*, 184쪽.

35) Ibid, 185쪽.

36) Tavis, C. and Elliot Aronson, *Mistakes Were Made(But Not By Me)*, Lescher and Lescher, 2007. 박웅희 역, 『거짓말의 진화: 자기정당화의 심리학』, 추수밭, 2007. 27쪽.

상적으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고 시도하지만, 정치엘리트들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³⁷⁾ 예컨대 과거 야당에서 권위주의 정부와 격렬하게 투쟁했던 정치인들이 공천탈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권위주의적 여당으로 당적을 옮길 경우가 있다. 이때 상당수의 정치엘리트들이 자기정당화를 시도한다. 자신들이 추종했던 “(야당 지도자의) 위선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해서”, “현실 정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절실히 요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에 따른 자기기만은 뒤에서 말하는 허위진술(거짓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진정으로 그것(자기기만적인 진술)을 믿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들릴 경우에도 그렇다. 일견 이해되지 않는 구술자의 기억 중에는 상당수가 이러한 사례로 추정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억이 변형되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형된 기억은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을 확대 시킴으로써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때 우리가 구술자에게서 기억변형이 일어나는 다양한 이유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구술자의 구술자료를 해석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5. 제3유형 :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

과거의 경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의 기억으로 응고(consolidation) 되었다하더라도, 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술자는 구술하는 과

37) 위의 태브리스(Tavris)와 애런슨(Aronson)의 책은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진술(거짓말)은 구술자료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무의미한’ 간극이다.

1) 의도적인 허위진술

정치엘리트들이 허위진술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하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거나 위해(危害)를 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한다.

허위진술은 앞에서 언급했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후자가 ‘자신을 속이기 위한 무의식적 행위’인 반면, 전자는 ‘타인을 속이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라는 점이다.³⁸⁾ 또 한 가지 차이는 진술하는 태도와 일관성에서 드러난다.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진술은 실제 자신의 믿음과 생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진술내용은 오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며 반복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거짓 진술은 불확실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속여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 거짓진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손쉽게 이전과는 반대진술로도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적 허위진술은 논란의 여지없이 제거되어야 할 간극이다.

38)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 비춰 볼 때, 정치엘리트들이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자신을 기만하는 구술이 많았을지는 몰라도 의식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기란 어려웠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거짓말로 답해야 할지도 모를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사전에 그 질문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다.

다만, 거짓말의 동기를 유추하는 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반복되는 허위진술

흔히 말하는,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한 의도적인 허위진술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지는 것이라면, 반복되는 허위진술은 뚜렷한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허위진술은 구술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앞에서 허위진술을 하고나서, 어쩔 수 없이 그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것이다. 일례로 들면, 앞선 진술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한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나 몇 칠 후에 이어진 면담에서 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등급별로 선거비용을 차등지원 받았음을 인정했었다. 이때 그는 자신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진술을 덧붙이고자 했다. 별다른 실익도 없는 허위진술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구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진술을 반복했을 경우에 손쉽게 그 허위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앞에서의 진술과 뒤에서의 진술의 맥락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허위진술의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허위진술은 현실세계에서도 발생하며, 때로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학자출신의 정치인 P씨는, “1960년대 한국 정부가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파독광부·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했기에 때문에 가능했다”는, 소위 ‘임금담보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³⁹⁾ 그는 구술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확신과 감동에 찬 어조로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임금담보설’은 일반 시민들, 그리고 당사

39) P씨는 자신의 회고록, 언론인터뷰, 정치엘리트 구술에서 반복적으로 임금담보설을 주장한 바 있다.

자였던 파독광부·간호사 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에서조차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진술이었다.⁴⁰⁾

이처럼 반복적인 허위진술은 그 허위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반복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 p씨의 거듭된 허위진술 사례에서처럼 허위가 객관적 사실로 둔갑할 수 있으며, ‘서민의 설움을 극복하고 일구어 낸 성공적 근대화’라는 허위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 간극 좁히기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요소는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 글에서 반복하진 않는다. 반대로 이 글에서는 구술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적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즉 사실과 구술자료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간극에는 질적으로 상이한 간극형태들이 포함되어있으며, 따라서 이 간극들이 단순히 ‘거리’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기억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풍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구술자료는 문서기록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과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구술자료가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구술자료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객관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간극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

40) 법적으로나 연대기적으로 입금을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파독인력 중에서 입금을 강제로 담보했다는 주장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나온 바가 없다. 이영조·이옥남, 「1960년대 초 서독의 대한 상업차관에 대한 파독근로자의 임금 담보설의 진실」, 『한국정치외교사론총』 제34집 2호 참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부 ‘무의미한’ 간극을 걷어내고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제는 이미 생산된 구술자료에서 무의미한 간극을 걷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란 점이다. 간극들 사이에는 객관과 주관, 의식과 무의식, 사실과 허위가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미 생산이 생산이 완료된 문서기록과는 달리, 구술자료는 생산 과정에 개입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술연구, 특히 엘리트 구술연구가 지니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다.

구술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의미한 간극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영역에서 축소할 수 있다. 첫째,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소할 수 있다. 이때 구술자에게 충분히 기초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초정보를 접한 구술자는 의도하지 않는 착오나 혹시 있을 지도 모를 허위진술에 대한 유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클린턴대통령 구술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⁴¹⁾ 그들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브리핑북(briefing book)을 통해 구술자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브리핑북에는 구술자가 관련된 뉴스기사의 연대기, 구술자가 행했던 주요 연설이나 공개진술 표본들, 주요 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뉴스기사, 그리고 인터뷰에서 질문할 내용들이 담긴 사전질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⁴²⁾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구술자의 착오를 줄이거나, 망각했던 기억을 다시 회상케 하거나,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도 있다.⁴³⁾

둘째,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축소할 수 있다. 구술자료 수집은 구술자와 면담자가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친밀감(rapport)은 필수적이다. 본 면담에 앞서 사전면담을

41) Riley, "Presidential Oral History", pp. 93-94.

42) 이 작업은 대학원생들에 의해 진행되며, 40여명이 넘는 전문연구자들 중에서 관련자가 함께 한다. Ibid, pp.93-94.

43) 필자가 수행하는 정치엘리트구술에서도 충실한 정보를 담은 사전질문지의 효과는 뚜렷하였다.

갖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술의 목적·내용·방향에 대해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이때 면담이 학술적 환경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구술결과물이 미래세대를 위해 공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⁴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신뢰와 친밀감을 유지해야하며, 구술의 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엘리트는 비엘리트와 달리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⁴⁵⁾ 이때 면담자가 구술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줌으로써, 구술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주제를 벗어난 진술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술자료의 해석과정을 통해 줄일 수 있다. 흔히 연구자들은 구술자료가 문서자료의 빈공간과 오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⁴⁶⁾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하나의 구술자료는 다른 구술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서자료들과 함께 교차검토(triangulation)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미한 주관적 진술이나 허위진술이 만들어낸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기초해 볼 때, 본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재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44) Ibid, p.96.

45) 김태우, 「엘리트 구술자료의 성격과 수집 방안」, 51~52쪽.

46) Tansey, O. "Process Tracing and Elite Interviewing: A Case for Non-probability Sampling",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40, No.4, 2007, p.6.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the Gaps between 'Fact' and 'Oral Materials' in Political Elite Oral History

Jo, Young-Jae

The value and validity of elite oral materials have been questioned because of their gaps with 'f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se gaps and to propose some solutions that can reduce the gap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gaps that qualitatively differ from each other. The first type of the gaps is produced in the process of generation of memory. This type is made because informants cognize and memorize the facts that exist outside themselves. Selective cognition, selective memory and individual experience come under this category. The second type is produced in the process of preserving the memory. Forgetting and memory transformation are main examples of this type. The third type is p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interviews with the informants. False statements or lies fall into this category.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ll gaps in oral materials are not necessarily negative. It is because Some of these gaps- the first and the second type- are not only parts of the real world but also very useful for interpreting the world. 2) The third type of the gaps are very harmful and it is need to be eradicated or reduced. For this, this article proposes some solutions.

Key words : oral material, oral history, political elite, selective memory, memory transformation, forgetting, groupthink, mood congruence, cognitive dissonance, consistency bias